

광주경찰청, 5개 기관·단체와 사회적 약자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협약

굿네이버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은 지난 7일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굿네이버스 광주전남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DB손해보험, ㈜호원, 송학건설 등 5개 기관·단체와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 희망티움 통합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광주지역 내 58개 공·사 기관 단체와 맺은 '사회적 약자 통합지원단' 업무협약(1, 2차)에 이어, 통합지원단의 규모를 확장해 지역사회 지원 역량을 제고하려는 자경위·광주경찰청의 노력과, 참여 의사를 밝힌 5개 기관·단체의 뜻이 모여 이뤄졌다.

'희망티움 통합지원단'은 4개 분과(사례관리, 상담·지원, 나눔, 희망)로 구성 총 63개 기관·단체들과 손을 맞잡아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3차 업무협약으로 ▲보복 범죄 우려가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홈·보안서비스 지원(DB 손해보험) ▲재범소년범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주)호원 ▲범죄 피해 미혼모 등 위기 가정 대상 생필품지원(송학건설) ▲장애인 피해자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전남직업능력개발원) 등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된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범죄 피해자의 상당수는 여



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범죄로 인해 하루아침에 아제와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합지원단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치안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힘을 보태주시는 기관·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준에 분산되어 있던 지역사회 지원 역량을 일원화시키는 한편, 민간영역의 사회공헌사업

이 공적 영역과 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통합지원단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뜻이 있는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티움 통합지원단'은 범죄 관련 사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4개 분과 활동(사례관리, 상담·지원, 나눔, 희망)을 통해 내실있고 지속 가능한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K리그 제주 권순호 선수, 광주대에 발전기금 500만원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배출한 프로 축구 K리그1 제주 유니타드 권순호 선수가 모교 발전기금 500만 원을 쾌척했다.

권순호 선수는 지난 6일 광주대 행정관 6층 접견실에서 김동진 총장에게 모교 발전기금 추배양성에 사용해 달라며 발전기금 약정서를 전달했다.

김동진 총장은 "재학 중 프로에 조기 진출해 광주대학의 명예를 드높여준 권순호 선수의 무궁한 발전을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광주대가 낳은 축구스타 조규성(덴마크 미트윌란) 선수의 뒤를 이어 당당하게 경쟁하고 겸손함을 갖춘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순호 선수는 "제주라는 좋은 팀에 입단해서 정말 기쁘다. 광주대 이승원 감독님께 배운 기량이 프로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더해 소속팀 제주에 보탬이 되는 선수, 광주대의 명예를 드높이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글로벌대학 30 선정 지원 협약

(재)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순천시, 순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주)파루인쇄전자, (주)지코스메틱 등 지역 대표 선도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일 순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대학 30 선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석한 기관·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대학 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됨에 따라 향후 그린 스마트팜 및 우주항공·첨단소재 등 전남 특성과 분야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자체와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강소기업 육성과 학생 현장실습(인



턴십)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연구장비·시설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기업들은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

역량과 시설·장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순천대의 대학 R&D사업도 공동 운영이 가능해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양래 5·18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별세

5·18민주화운동을 전국과 세계에 알리는데 헌신한 김양래(사진) 5·18기념재단 전 상임이사가 지난 8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그는 1980년 전남대 농대 4학년 때 5·18민주화운동을 접했다. 당시 풍물패를 이끌고 시위에 참가했다. 불합격 그 해 7월부터 4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전주고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11년 동안 간사로 활동하면서 5·18 사진전 개최와 사진자료 집 편찬 등을 통해 진상규명 활동을 해왔다. 특히 1987년 임무택(68) 사진가, 홍세헌(63) 당시 광주 정평위 사무국장과 함께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사진집과 '광주 비디오풍'을 제작, 배포한 것이 5·18을 전국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 또 한국문화관광정



책연구원 사무처장 당시 5·18민주화운동보상금 4100여만원을 전주고 광주대교구에 기부하기도 했다.

2017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외국 폄해 사실이 담긴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되자 조비오 신부와 함께 전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발인은 11일 오전 8시30분. 장지는 국립 5·18민주묘지다. 안장에 앞서 오전 10시 광주시 산수동상당에서 장례미사가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for EBS1.

Horoscope section for the date 9월 11일 (음 7월 27일 壬申). Include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